

예레미야서 37-39장에 나타난 시드기야의 정치 세력*

정미혜(서울신대)

1. 서론

‘정치’라는 단어가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발상지를 고대 그리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민주 정치는 선거와 정당으로 이루어진 현대 정치와 많은 차이가 있다. 정치학은 본질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말하며 더 포괄적으로 권위 행사를 연구하는 것이다.¹ 그러므로 정치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조직 내에서 일어난다. 정치 체제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사회조직이 국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치 활동은 국가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국가의 정치권력은 국가 구성원 전체

* 본 글은 2023년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Political Parties of the Late Kingdom of Judah* (박사학위논문,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2023)의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1 앤드류 헤이우드,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정치학」 (조현수 옮김),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4), 30.

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연 자원이나 인적 자원을 통제하는 일과 관련 있다.² 고대 유다는 군주제 국가였다. 군주제 국가에서는 왕이 국가의 주권을 상징한다. 특히 현대는 군주제를 언급할때 가장 먼저 군주의 권한이 강한 전제 군주제를 생각한다. 그러나 군주제 국가라고 해서 모든 군주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현대와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고대 유다에서도 정치제, 즉 정부 기구에 집중된 사회 조직 제도가 있었다. 고대 유다의 군주제에서 군주가 국가의 최고 결정권자였고 이러한 군주로서의 왕권은 세습되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을 왕이 가지고 있었지만, 형식적 조직의 구성원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믿음을 추구하는 세력들은 존재했고 그들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여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것은 사회 조직 제도를 가진 정치 조직 안에서 권력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³

많은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정치 세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다. 가장 먼저 예레미야서를 통해 유다의 정치 세력을 연구한 학자인 윌콕슨(Jay A. Wilcoxon)은 요시아의 통치시기에 존재했던 두 정치 세력인 친바벨론 세력과 친이집트 세력이 요시아 사후 왕위 계승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연구했다. 요시아에게는 두 명의 왕비가 있었다. 윌콕슨에 따르면, 요시아 사후에 친바벨론 세력은 요시아의 부인 하무탈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지지했고, 친이집트 세력은 요시아의 또 다른 부인이었던 루마 출신 스비다의

2 노만 갓윌드,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 정치」 (윤성덕 옮김), (서울: CLC, 2018), 38

3 위의 책, 41.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지지하였다고 주장한다.⁴ 요시아의 시기 친바벨론 세력이 유다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시아 사후 친바벨론 세력의 지지를 받았던 여호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왕위 계승을 통해서 요시아 시대의 유다의 정치 세력을 연구한 월콕슨의 시도는 이후의 학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월콕슨의 경우는 왕이 후계자를 남기지 않고 죽은 경우 왕위 승계에 나타난 정치 갈등만을 연구한 것이지 이러한 갈등 집단이 유다 정치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것은 아니다. 월콕슨의 연구를 발전시켜 예레미야 37-44장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따른 갈등을 연구한 자이츠(Christopher Seitz) 역시 유다에 정치적으로 갈등하는 친바벨론 세력과 친이집트 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에 동의한다. 자이츠는 특히 예레미야서 37-44장이 친바벨론적 성향을 가진 사반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서기관 그룹에 의해서 포로기에 기원했으며, 시드기야를 다윗 계열의 합법적인 왕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한다.⁵ 자이츠의 연구는 친바벨론 세력과 요시아의 종교 개혁에 참여한 세력들을 동일시하여 친바벨론 세력을 재구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월콕슨과 자이츠의 연구를 배경으로 샤프(Carolyn J. Sharp)는 유다 멸망의 시기에는 친바벨론 세력과 친이집트 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들의 정치활동을 연구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샤프는 597년 포로 이후 바벨론에 끌려간 디아스포라 공동체와 유다에 남아 이집트로 도망친 유대 디아스포라 엘리트들의 갈등이 예레미야서에 존재하며 이들이 예레미야서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바벨론 포로 공동체와 유다의 남아있는 사람들의 갈등

4 Jay A. Wilcoxon, "The Political Background of Jeremiah's Temple Sermon", A.L.Merrill and T.W. Overholt (eds.) *Scripture in History and Theology*, (Pickwick, 1977), 151-166.

5 Christopher R. Seitz, *Theology In Conflict* (Berlin: De Gruyter, 1989), 1-7, 222-239.

에 대해 연구하였다.⁶

비록 많은 학자들이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정치 세력을 연구한 것은 아닐지라도, 요시야 사후 유다에 친바벨론 세력과 친이집트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두 갈등 세력의 이름을 친바벨론과 친이집트라는 고대 근동의 제국들과의 관계에서 파생된 관계로 정의함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정치가 고대 주변 강대국들과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지지 않았으며 언제까지 이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되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유다와 제국들과의 관계는 전제 군주제라는 제도로 인하여, 왕위 계승때 어느 제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는지 혹은 제국들의 하티-랜드 원정이 어느 시기에 있었는지에 의해 결정되어졌다. 그러나 시드기야 시기는 유다 멸망 직전으로 유다가 전제 군주제였으나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시드기야가 유다 내부의 정책을 독재적으로 결정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는가? 이러한 두 대립하는 정치 세력이 유다의 왕위 승계에만 영향을 미친 것인가? 그렇다면 시드기야 시기 어느 세력이 정치적으로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집권 세력의 정치 성향이 유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본고는 고대 이스라엘 말기에 어떤 정치 세력들이 존재했으며, 그들 사이에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 이것이 유다 말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예레미야 37-39장, 시드기야 시기에 친바벨론과 친이집트 두 세력 가운데 정치 권력을 잡은 세력은 어디며,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하는지, 그리고 유다 내부의 정치 세력들이 주변 제국들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6 Carolyn Sharp, *Prophecy and Ideology in Jeremiah: Struggles for Authority in the Deutero-Jeremianic Prose*, 1st edition (London ; NY: T&T Clark, 2003), 159-66.

2. 시드기야 시대의 국내외 정세

1) 주변 강대국들의 국제 정세

유다가 위치한 하티-랜드는 지리적으로 당시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앗시리아와 바벨론이 속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버벡크와 쿠퍼는 제국을 “팽창주의적이거나 한때 공간을 가로질러 팽창했던 기억을 간직한 커다란 정치 단위, 새로운 사람들을 통합하면서 구별과 위계를 유지하는 정치체”⁷라고 정의한다. 바벨론과 이집트는 시드기야 시대 대표적인 제국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영토들을 확장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과 끊임없는 전쟁과 분쟁을 일으켰다. 제국과 제국 사이에 위치한 작은 나라들은 제국들의 교차로가 되었다. 이러한 제국의 교차로는 무역로가 되기도 했고 경쟁하는 제국들이 부딪치는 장소를 제공하기도 했다.⁸ 바벨론이 속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에 하티-랜드가 위치해 있었다. 하티-랜드에 위치한 유다는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 제국의 교차로가 되었다. 고대에 제국의 광활한 영토를 황제가 모두 직접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변방으로 이동할수록 제국의 통제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제국들은 영토를 확장하여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였지만, 무리한 영토 확장은 오히려 국가의 통제를 느슨하게 만들어 국가 몰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바벨론과 이집트는 시드기야 시대 강대국이었으나 서로의 영토를 정복하기 보다는 각자의 내정에 간섭하여 자국의 영향력 하에 두기를 원했고 제국의 교차로에 해당하는 하티-랜드의 통제권을 갖기 원했다. 이 과정에서 하티-랜드의 나라들은 더 강한 나라에 정복당하거나 봉신 국가가

7 제인 버벡크, 프레데릭 쿠퍼, 「세계제국사」 (이재만 옮김), (서울: 책과함께, 2016), 24.

8 위의 책, 34-35.

되기도 했다. 고대 유다는 지정학적으로 바벨론과 이집트 두 제국 사이의 교차로 역할을 했으나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여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다. 유다가 제국들과 영향력을 주고받는 제국들의 교차로에 위치했기 때문에 유다의 정치권력의 변화를 연구하고자 할 때 유다의 국내 상황만을 가지고 연구할 수 없다. 유다의 정치권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주변 제국들과의 힘의 역학 관계와 관련하여 살펴봐야 한다.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시기 유다 밖의 해외 정세는 세계의 패권이 앗시리아에서 바벨론으로 바뀐 직후였기 때문에 국제 정세가 불안한 시기였다. 오랫동안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티-랜드를 넘어 이집트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던 앗시리아는 기원전 627년 앗수르바니팔의 죽음 이후 일어난 왕자들의 난을 계기로 급속도로 쇠락의 길을 걸었다. 앗수르바니팔은 앗시리아의 오랜 숙원이었던 이집트 원정을 단행하여 이집트의 구스 왕조였던 25왕조를 무너뜨리고 느고(Neco)를 왕으로 하는 새로운 26왕조를 세웠다. 앗수르바니팔 때 앗시리아는 느고 I세와 그의 아들 프사메티쿠스I세(PsammetichusI)가 통치할 때까지 이집트의 내정에 깊게 관여하였으며 하티-랜드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앗수르바니팔 사후 그의 아들들인 신-샤르-이쉬쿰(Sin-Shar-ishkun)과 신-숨-일리시르(Sin-sum-lisir)사이에서 왕위 계승전이 발발했다. 이러한 후계 다툼은 앗시리아의 힘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앗시리아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주변국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기원전 626년 앗시리아의 속국이었던 바벨론에선 나보폴라살(Nabopolassar)이 왕위에 올라 앗시리아를 위협했다. 또한 앗시리아의 도움으로 이집트에 새로운 왕조를 열었던 26왕조는 프사메티쿠스I세의 시기 이집트 전역을 통일하고 빠르게 앗시리아로부터 독립했다. 앗시리아의 내정 간섭을 피해 독립을 쟁취한 뒤에도 프사메티쿠스I세를 비

못하여 그의 아들 느고II세의 시기까지 이집트는 앗시리아의 충실한 동맹국으로 남았다. 기원전 616년 신-샤르-이쉬쿰이 바벨론의 나보폴라살과 동맹을 맺어 앗시리아의 왕위를 차지했으나 왕위 계승전이 끝나자 동맹은 깨지고 앗시리아와 바벨론은 세계의 패권을 놓고 맞붙게 되었다. 기원전 616년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 앗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침략하자, 이에 맞서 앗시리아-이집트 연합군은 바벨론과 대항해 싸웠다. 기원전 614년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은 결혼을 통해 메대와 동맹을 맺었다. 그 결과 고대 근동의 패권은 앗시리아-이집트 동맹 대 메대-바벨론 동맹으로 나뉘어져 맞붙었다.

기원전 610-609년 앗시리아-이집트 동맹과 메대-바벨론 동맹이 앗시리아의 마지막 수도였던 하란의 통제권을 놓고 충돌했다. 이 전쟁은 메소포타미아의 패권 다툼이자 하티-랜드에 영향력을 확보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전쟁이었다. 기원전 609년 앗시리아를 돕기 위해 이집트의 느고II세는 하란으로 원정을 떠났다. 유다 왕 요시야는 바벨론을 돕기 위해 므깃도에서 느고II를 막아섰으나 전사한다. 이집트-앗시리아 군대는 하란을 향해 진군했으나 하란을 다시 수복하지 못했고 하란의 통제권을 되찾지 못한 앗시리아는 결국 멸망한다. 요시야를 죽인 느고는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에 요시야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왕하23:33; 대하36:2-4),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고쳐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왕하23:34; 대하36:4). 바벨론의 나보폴라살과 그의 후계자 느부갓네살은 하란의 통제권을 확보한 후 이집트와 교전을 계속했다. 그 사이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승리가 확정될 때까지 이집트는 하티-랜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즉, 이집트는 경제적, 전략적 요충지로서 제국의 교차로가 되는 하티-랜드 지역의 통제를 확립하고자 했고 이것이 이집트와 바벨론간의 패권 다툼의 시작이었다.

앗시리아가 멸망한 뒤 바벨론은 이집트와 세계의 패권을 놓고 다투었고, 이들이 부딪친 곳은 제국의 교차로가 되는 하티-랜드였다. 기원전 605년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은 이집트를 상대로 크게 이겨 하티-랜드의 통제권을 확보했다. 갈그미스 전투 이후 바벨론은 블레셋을 비롯해 유다로까지 영향력을 넓혀갔다. 결국 하티-랜드의 통제권을 확보한 바벨론의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세계의 패권이 계속해서 바뀌는 복잡한 정세 속에서 유다의 왕들과 정치 세력들은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를 오가며 강대국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렸고 내정은 간섭받았다.

2) 시드기야 시대 국제 정세가 유다에 미친 영향

요시야가 므깃도에서 이집트의 느고를 막아서다 전사 한 이후 유다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 지리적으로 제국의 교차로인 하티-랜드에 위치한 유다는 하티-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국이 바뀔 때 마다 이리 저리 통제권을 빼앗기며 제국들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시드기야의 왕권은 약화 되어 있었다. 유다 내에서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사이에서 두 집단이 각각의 왕의 정통성을 주장했다. 백성들 중 일부는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했으나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여호야긴이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렸다(겔1:2; 왕하 25:27).⁹ 이들은 시드기야가 이방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위에 앉혀진 꼭두각시 왕이었기 때문에 시드기야를 지지하지 않았다. 더욱이 시드기야를 왕위에 앉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여호야긴과 유다의 사람들

9 정중호, “시드기야 왕의 노비해방과 왕권강화”, 『구약논단』 44집 (2012년 6월), 188-189.

을 포로로 끌고 갔기 때문에 유다 내에서는 바벨론을 싫어하는 감정이 고조되어 있었다. 반면에 또 다른 집단은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호야긴은 완전히 버려진 자로 인식되어져 시드기야를 유다의 진정한 왕으로 믿는 그룹이 존재했다(렘 22:24-30). 이렇게 유다 내부에서 시드기야와 여호야긴을 지지하는 여론이 각각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유다 내부에서 완벽히 백성들을 장악하지 못했다. 또한 여호야긴과 함께 많은 유다의 지도부가 사로 잡혀 갔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유다 내부에서 시드기야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시드기야의 어머니는 립나 출신 하무탈로(왕하 24:18) 여호아하스와 시드기야는 동복형제였다(왕하 24:31). 요시야의 죽음 이후 여호아하스는 요시야를 왕위에 올렸던 “땅의 백성들”에 의해서 그 보다 나이가 많았던 여호야김보다 먼저 유다의 왕이 되었다(왕하 23:30-31). 과거 땅의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켜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을 죽이고 여덟 살의 어린 요시야를 유다의 왕위에 앉혔다(왕하 21:24). 요시야가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죽자, 땅의 백성들은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다. 이 동규는 땅의 백성들을 땅을 소유한 귀족 집단으로 요시야의 개혁과 깊게 관련된 사람들로 보았다.¹⁰ 자이츠(Christopher R. Seitz)는 땅의 백성들이 북부 지방과 구별된 유다의 지방과 관련된 귀족들로 유다 정치에 깊게 관여하였는데, 특히 왕이 후계 없이 사망한 경우 왕위 계승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¹¹ 땅의 백성들이 왕위 계승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왕의 어머니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¹² 땅의 백성들

10 이동규, “요시야 개혁과 암 하아레즈”, 「구약논단」 28집 (2008년 6월), 49-66.

11 Christopher R. Seitz, *Theology in Conflict* (Berlin: De Gruyter, 1989), 55-57.

12 Jay A. Wilcoxon, “The Political Background of Jeremiah’s Temple Sermon,” in *Scripture in History and Theology*, edited by A. L. Merrill and T.W. Overholt (Pittsburgh: Pickwick,

의 기원이 다윗 왕국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삼하 2:4) 유다의 장로들로 예상할 수도 있지만, 요시야 시대 땅의 사람들이 요시야의 왕위 계승에 관여한 것을 미루어 요시야의 정치에 깊게 관여한 관리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비록 땅의 백성들이 유다의 지방과 관련된 자들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왕위 계승에 영향을 미칠 만큼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었고 이들이 왕위 계승자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왕의 어머니의 정치적 성향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실하다. 뿐만 아니라, 자이츠는 요시야의 시기 땅의 백성들의 정치적 성향이 친바벨론적이었다고 분석한다.¹³ 요시야 시대 정치의 핵심은 요시야의 개혁이었으며, 이 개혁에 참여했던 사람들-힐기야, 사반의 가족, 홀다-은 대표적인 친바벨론 세력이었다. 요시야의 사후 땅의 백성들은 하무탈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옹립했다(왕하23:30). 윌콕슨(Jay A. Wilcoxon)에 따르면, 요시야의 시대 친바벨론파와 친이집트파가 존재했으며, 친바벨론파는 여호아하스와 그의 어머니 하무탈을 지지했고, 친이집트파는 여호야김과 그의 어머니 스비다를 지지했다고 주장한다.¹⁴ 비록 땅의 백성들이 유다의 지방 출신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왕의 어머니의 출신지는 정치 성향을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된다.¹⁵ 여호아하스와 시드기야의 모후였던 하무탈의 고향인 립나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라기스 북동쪽 10km부터 헤브론 사이 일부 지역들 가운데 한 장소인 텔보르낫으로 추정된다.¹⁶ 립나의 위치가 남쪽으로 이집트와 가

1977), 151 - 166; Christopher R. Seitz, *Theology in Conflict*, 52-55.

13 Christopher R. Seitz, *Theology in Conflict*, 69.

14 Jay A. Wilcoxon, "The Political Background of Jeremiah's Temple Sermon," 151-166.

15 위의 책, 151-166; Christopher R. Seitz, *Theology in Conflict*, 55-57; J. 맥스웰 밀러, 존 H. 헤이스, 「고대 이스라엘 역사」 (경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505; 이동규, "요시야 개혁과 암 하이레츠", 60-62.

16 John L. Peterson, "Libnah" *ABC* 322-323.

까웠기 때문에 립나는 이집트의 공격으로부터 유다를 지키는 최남단의 방어기지였다. 항상 이집트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최남단 방어기지인 립나 출신이었던 하무탈은 자연스럽게 반이집트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국과의 동맹에 있어서 이집트가 아닌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한 나라들을 선택할 것이고 바벨론을 이집트 보다 더 지지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요시야 사후, 친바벨론적 성향을 가진 요시야의 개혁에 참여했던 땅의 백성들에 의해서 하무탈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랐다.

여호아하스는 왕위에 올라 삼개월간 유다를 통치했으나(왕하 23:30-31; 대하 36:1-2), 이집트에 의해서 여호아하스가 폐위되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다(왕하 23:34-35; 대하 36:4-5). 이집트는 여호야김을 이집트로 포로로 데려가 죽인후, 친이집트파가 지지하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만들어 유다를 이집트의 봉신국으로 만들었다. 므깃도에서 승리한 이집트는 유다에 은 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요구했다(왕하 23:33). 이 후, 여호야김은 이집트에 충성했으나, 기원전 604년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기자, 세계의 패권이 바벨론에 넘어간 것으로 여겨 바벨론의 봉신이 되었다. 그러나 기원전 600년 바벨론의 이집트 침공이 무위로 끝나고 후퇴하자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바치던 조공을 거부하고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었다. 기원전 599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자 여호야김은 이집트에 원조를 기대했으나, 해상 무역으로 눈을 돌린 이집트의 느고는 유다를 원조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기원전 597년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여호야김의 후계자로 왕위에 올라 삼개월을 통치했던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갔다(왕하 24:3-16; 대하36:9-10).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맛다니아를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꿔 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세웠다(왕하 24:17, 대하36:11).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으나, 기원전 590년대 말이나 580년대 초 시드기야 역시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절하고 바벨론에 반기를 들었다(왕하 24:20). 하무탈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는 여호아하스의 동복형제였다. 이것은 시드기야가 여호아하스와 마찬가지로 친바벨론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정책은 바벨론에 대항하여 조공을 거절하는 등 친이집트적인 정책을 펼친다. 이것은 시드기야가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라든가 유다의 국내 여론은 반바벨론적인 정서가 가득했고 친바벨론적인 성향의 정치 세력들은 포로로 잡혀가 유다 내부에는 친이집트 성향의 정치 세력들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원전 594년 이후 바벨론은 하티-랜드에 원정을 감행하지 않았으나 느고II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프타메티쿠스II의 이집트는 누비아 원정에서 승리하고 하티-랜드로 순방을 떠났다.¹⁷ 그 결과 유다는 바벨론의 힘이 약해졌다고 판단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이집트가 군사적으로 도움을 줄 것을 기대했다. 유다의 반란으로 인해 바벨론은 유다를 포위 공격하였다. 기원전 589년 시드기야는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했다.¹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했던 589-570년 동안 이집트의 새로운 파라오 아프리에스(Aprius 성경의 호프라)가 팔레스타인에 원조를 보내자 바벨론은 일시적으로 포위망을 풀었다(렘 37:1-10).¹⁹ 그러나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 큰 교전 없이 이집트가 철군하자 바벨론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 공

17 맥스웰 밀러, 존 H. 헤이스, 「고대 이스라엘 역사」 519-520.

18 William F. Albright, trans., "Lachish Ostrakon III," in *ANET*, ed. James B. Pritchar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322. 기원전 589년 (또는 588년) 가을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Lachish Ostrakon III에서는 군대장관 엘라단의 아들 고니스(Conish son of Elnathan)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은 포위된 유다가 이집트에 원조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보여진다.

19 맥스웰 밀러, 존 H. 헤이스, 「고대 이스라엘 역사」 521.

격했다. 결국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시드기야는 야밤에 트랜스요르단으로 도망을 갔으나(렘 25:4) 바벨론의 추격군에 붙잡혀 립나로 이송되었다.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힌 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왕하 25:3-7; 렘39:1-7; 52:5-11). 시드기야가 잡혀감으로 고대 유다 왕국은 멸망했고 포로기가 시작되었다.

요시야 사후 유다에는 네 명의 왕들이 유다를 지배했으나 그들의 통치 시기 유다는 강대국들에 의한 줄다리기의 장이 되어야 했다. 세계의 패권의 변화에 따라 제국의 교차로에 위치해있던 유다는 통제권을 가진 제국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었는데, 요시야 사후 통제권이 바벨론과 이집트에 의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닐 때 마다 유다의 국내 정치 역시 흔들리게 되었다. 국내외적인 요소들은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왕권을 약화시켰다. 당연한 결과로 왕권의 약화는 엘리트 지배 귀족들의 정치적 권한을 강화시켰다. 시드기야는 친바벨론 세력의 지지를 받은 어머니 밑에서 성장함으로써 친바벨로적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책은 바벨론에 대항하고 이집트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시드기야 자신의 의지이기 보다는 당시 지배 귀족들의 정치 성향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시드기야 시대의 정치 세력들의 권력 다툼이 예레미야서 37-39장 사이에 잘 나타나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7-39장을 통해 시드기야 시대 누가 정치 권력을 잡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치 세력과 왕권과의 관계를 37-39장의 연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3. 예레미야서 37-39장에 나타난 시드기야 시대 정치 세력

예언서 가운데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예레미야서는 특히 이야기체 문헌에서 구체적인 유다의 정치 상황과 제국들의 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예레미야 37-39장은 시드기야 시대의 정치 세력의 힘의 역학 관계를 연구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특히 시드기야는 친바벨론적 정치 배경에서 성장하였으나, 친이집트적 정책을 실행하였다. 이것은 왕의 성향이 바뀐 것이 아니라, 유다 내부 정치에서 왕권의 약화로 인해 정권을 잡은 친이집트 세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예레미야 37-39장의 시드기야 왕과 유다 고위 귀족들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유다의 정치 세력들의 행동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예레미야 37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37:1-10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37:11-15는 예레미야의 투옥, 그리고 37:16-21은 시드기야의 청원으로 나눌 수 있다.

37:1-10은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다. 37:1-2은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을 설명한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여호야긴의 이름이 고니야로 언급되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서술한다. 시드기야 시대의 대략적인 배경 설명 뒤에, 37장의 실질적 역사적 배경은 3절 이하에 나타나는데 시드기야가 조약을 파기함으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 왕위에 오른 시드기야는 친바벨론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유다 백성들의 여론과 정권을 잡은 세력은 친이집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5절은 시드기야의 반란으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했으나 이집트 군대가 온다는 소문에 일시적으로 포위 공격을 풀었던 사건을 나타낸다. 6-10절은 예

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다. 비록 이집트의 원조로 인해 바벨론이 잠시 동안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었으나 이집트는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렘 37:7), 결국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불사를 것이다(렘 37:8-10).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바벨론이 승리할 것이라는 친바벨론적인 메시지로 보여진다.

실질적으로 예레미야는 친바벨론과의 핵심 세력이었던 사반의 가족의 지지를 받았다. 사반의 가족의 핵심 인물인 사반은 대제사장 힐기야, 악불, 아사야와 함께 대표적인 친바벨론 세력이자 요시야 개혁의 핵심 세력이었다(왕하 22장). 요시야는 바벨론을 도와 이집트를 막기 위해 므깃도에서 전사했을 만큼 친바벨론적인 정책을 펼쳤다. 요시야의 고위 관리였던 사반은 요시야 개혁의 핵심 세력으로 대표적인 친바벨론파인 사람이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 시절에 왕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할 때 예레미야를 피신시킨 사람이다(렘 36장). 이집트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은 친이집트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다. 그러나 친바벨론적 세력으로 고위 관리였던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친바벨론파였던 사반의 가족들은 바벨론의 사절로 일했다. 사반의 아들 엘라사는 힐기야의 아들 그마라와 함께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여 여호야김과 고위 관리들을 잡아갔을 때 바벨론에 사절로 보내졌다(렘 29:1-3). 유다가 멸망한 뒤 느부갓네살은 대표적인 친바벨론 세력 이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 유다를 통치했다. 요시야의 시기부터 그달랴의 시기까지 사반의 가족들은 친바벨론의 핵심 세력이자 유다의 고위 관리였다. 요시야의 시기부터 시드기야의 통치 시기까지 사반의 가족들은 핵심적인 친바벨론 세력이었다. 그 결과 이들의 지지를 받았던 예레미야 역시 친바벨론 세력

으로 여겨졌다.

37:11-15은 예레미야가 투옥되는 사건이다. 37:12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분깃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13절에서 문지기의 우두머리 이리야에 의해서 베냐민 문에서 붙잡힌다. 여기서 이리야의 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 도다” 이리야는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으로 가는 이유를 갈대아인에게 항복하기 위함으로 추측하여 고관들에게 끌고 갔고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 톰슨(J. A. Thompson)은 예레미야가 베냐민 문을 통해 베냐민 땅으로 가려한 의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 아나돗 소속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분깃을 받기 위해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했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추측한다.²⁰ 그러나 11-15절의 사건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고 있는 동안에 벌어진 일이다. 전쟁 중에 분깃을 나누며 그 분깃을 받기 위해 이동을 하는 것은 이상하게 보인다. 캐롤(Robert P. Carroll)은 예레미야가 자유를 위해 자신의 땅으로 가기 위해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했다고 주장한다.²¹ 그러나 이 사건은 예레미야가 갇히기 이전의 사건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대해 예루살렘 멸망 당시 베냐민 땅의 거주 인구를 연구한 립슈츠(Oded Lipschits)는 인구 변화를 근거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갔으며 그들 중 적어도 일부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미스바로 보내져 그달라의 지도 아래 반 시드기야 정부를 수립 했을 것이며 이것이 예레미야의 의도한 바 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²²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이전부터 미스바에 새

20 J. A. 톰슨, 「예레미야 (하)」(최우성 옮김) (서울: 크리스찬서적, 1993), 913.

21 Robert P. Carroll, *Jeremiah, A Commentary,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6), 675.

22 Oded Lipschits, *The Fall and Rise of Jerusalem: Judah under Babylonian Rule* (Winona Lake:

로운 저항 정부가 있었는지, 이것이 예레미야가 의도한 바인지 정확한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바벨론이 포위하자 미스바가 친바벨론 세력이자 반여호야김 세력의 집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알 수 있다. 베냐민 문은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베냐민을 땅으로 가기 위한 통로였을 것이다. 베냐민 문을 지키는 사람이 바벨론 군사가 아닌 유다의 문지기라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공성전이 벌어지면 적군이 도성을 포위하고 문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공격해야 하는데, 베냐민 문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밖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사람이 유다의 문지기라는 사실은 바벨론 군대는 베냐민 문을 통해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제지하지 않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이리야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기 위해 간다고 추측한 것은 이미 베냐민 문을 통해 바벨론에 항복하기 위해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과, 문지기의 우두머리인 이리야가 속한 세력은 친이집트 세력이며, 이들은 예레미야를 친바벨론 세력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가둔 것은 예레미야를 적군의 스파이로 혹은 반란군의 일부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15절에서 고관들의 판결 이후 예레미야는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감금되었다. 예레미야서 26장에서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한 이후 여호야김 왕과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할 때, 장로들 몇 사람이 예레미야를 변호했으며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와 준 것과 비교된다. 예레미야 26장에서는 일부 장로들과 관리들이 예레미야의 편을 들었으나, 37장에서는 예레미야는 변호 없이 갇히게 된다. 26장의 배경이 되는 여호야김의 통치 시기와 달리 37장의 예루살렘이 포위된 시드기야의 통치 시기 고위 관리들은 대부분이 친이집트파인 것을 알 수 있다. 시드

Eisenbrauns, 2005), 76-79.

www.kci.go.kr

기야 시기 친이집트 세력은 예레미야를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둘 수 있을 만큼 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이들은 고위 관리부터 성전 문지기의 우두머리에 이르기까지 폭 넓었다. 그 이유는 여호야김 시대까지 유다 내부에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친바벨론 관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이며, 남아있는 대다수의 친바벨론 세력들이 시드기야 시기 고위 관리직에서 쫓겨났거나 혹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 이전 자체적으로 나갔을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예루살렘 침공 당시 유다의 정치 권력은 친이집트 세력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7:16-21에서 시드기야는 간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은밀히 묻는다. 시드기야는 죄인인 예레미야를 찾아오는 것조차 은밀히 찾아와야 할 만큼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손에 넘겨질 것을 예언한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묻지 않고 비밀리에 묻는다. 더구나 18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왜 갇혔는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시드기야에게 묻고 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질문에 침묵으로 응답한다. 이것은 시드기야 본인은 예레미야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풀어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일지라도 고관들의 눈치를 보며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찾을 수밖에 없었고,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풀어줄 수 없다는 것은 시드기야의 통치 시기 시드기야의 왕권이 약하며 고위 관리들의 정치권력이 왕권을 능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20절에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다. 이것은 요나단을 비롯해 예레미야를 가둔 관리들이 예레미야와는 정치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친이집트 세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예레미야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왕이었으나, 이러한 예레미야를

직접 풀어줄 수도 없었고, 고관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고문을 제지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38장의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내용으로 37장과 연결되어 있다. 38:1-13은 갇힌 예레미야를 구해준 에벳멜렉의 이야기이고, 38:14-28은 예레미야를 다시 찾은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이다. 38:1-13은 다시 두 단락으로 나뉜다. 1-6절은 고위 관리인 맛단의 아들 스바다, 바스홀의 아들 그다랴, 셀레마의 아들 유갈, 그리고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고발한다(1절).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세력이 없는 가운데 고발자들의 이름으로 고위 관리들이 언급되는 것은 왕궁 내에 더 이상 예레미야를 변호해줄 수 있는 친바벨론 세력이 없으며, 고위 관리들의 대부분이 친이집트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발의 내용은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2-3절에 나타난다.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자는 죽고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것이다.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고 바벨론에 죽임을 당할 테니 항복하면 살고 반항하면 죽는다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흡사 매국노처럼 보여지기 까지 한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친바벨론적이다. 친이집트 세력에 해당하는 고위 관리들의 입장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 공성전에 돌입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사기를 고려한다면 예레미야를 고발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전쟁 시에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군사들 혹은 더 나아가 국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반역행위로 보여 졌을 것이다.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세력조차 없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예레미야의 말처럼 이미 친바벨론 세력은 베냐민 땅으로 집결하고 있었으며 예루살렘 성 안에는 바벨론에 항전하려는 사람들만 남았기 때문이다.

7-13절은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왕궁 내시인 구스인 에벳멜렉이 구원하는 장면이다. 에벳멜렉은 왕에게 나아가 성에 먹을 것이 떨어졌

www.kci.go.kr

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굶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9절). 이에 시드기야는 삼십 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를 구원하라고 이야기한다(10절). 에벳멜렉은 예레미야를 구원해 시위대 뜰에 머물게 한다(13절). 7절에 에벳멜렉은 베냐민 문 앞에 앉아 있는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간다. 톰슨은 왕이 베냐민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유가 관례에 따라 소송 사건에 대한 호소를 듣거나 판결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²³ 그러나 전시에 관례에 따라 왕이 한가하게 소송 사건을 듣거나 판결을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베냐민 문은 예레미야가 베냐민 쪽으로 나가려다 잡힌 장소이기도 하지만 베냐민 지역으로 탈주하거나 바벨론에 항복하는 사람들이 나가는 문이다. 바벨론이 포위 공격한 가운데서도 베냐민 문을 통해 나가는 사람들을 잡지 않은 이유는 이 문을 통해 베냐민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친바벨론 진영에 합류한다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립슈츠는 바벨론 문에서 있는 문지기가 베냐민 문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을 감시하는 의미가 공성전 기간 동안 베냐민 문을 통해 사람들이 떠나는 것에 대해 바벨론에서 부정적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감시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²⁴ 이러한 립슈츠의 의견은 상당히 타당하게 보인다. 이집트의 원조로 인해 바벨론이 잠시 포위를 풀었다가 이집트가 어떠한 대치 없이 철수하자 다시 포위를 한 상황에서 예루살렘 안에는 비관적인 견해가 더 커졌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탈주했을 것이다. 베냐민 문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반시드기야 진영을 구축하고 있던 베냐민 지역으로 가거나 바벨론에 합류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용하던 출구였다. 더욱이 전쟁에서 공성전을 치를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식수와 식량이다. 그런데

23 J. A. 톰슨, 「예레미야 (하)」 924.

24 Oded Lipschits, *The Fall and Rise of Jerusalem*, 76-77.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마저도 부족했다. 9절에서 에벳멜렉의 말 가운데는 이미 성중에 음식이 떨어졌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시드기야가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를 확인해 마지막으로 공성전을 펼쳐야 할지 도망을 가야 할지를 가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에벳멜렉이 왕에게 찾아와 예레미야를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8-9절).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잡아서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반란죄를 적용시켰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고관들이 취했던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을 취하는데 에벳멜렉의 청원을 듣고 예레미야를 구하라고 명령을 내린다(10절). 에벳멜렉이 구스인 내시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의 히브리어 뜻이 “왕의 중”이라는 것을 볼 때 그가 높은 지위의 고위 관리는 아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할러데이 (William L. Holladay)는 이러한 이름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며 이것은 노예에게나 주어지는 이름이라고 정의하며 에벳멜렉의 지위가 낮았을 것이라고 추정한다.²⁵ 이것은 이미 예루살렘 성안의 고위 관리 가운데 친바벨론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 결과 예레미야를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은 직위가 낮은 에벳멜렉과 같은 사람뿐이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에벳멜렉의 청원을 들어준다. 이것은 시드기야가 고위 관리들의 말과 에벳멜렉의 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유부단하고 결정력이 약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드기야가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의 왕권은 약했으며 유다의 정치권력은 친이집트 세력이 잡고 있었다면 시드기야는 자신의 의견과 상관없이 고관들의 말에 따라야 했을

25 William L. Holladay, *Jeremiah 2: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Chapters 26-52*, new e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289.

것이다. 그러나 에벳멜렉이 친바벨론 세력으로 분류되는 예레미야를 돕겠다고 했을 때 이러한 청원을 한 에벳멜렉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에벳멜렉의 청원을 들어 주었을 것이다.

38:14-28에서 시드기야는 37:16-21에 이어 다시 한 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다. 이에 예레미야는 자신이 시드기야에게 말하여도 왕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15절).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을 것이며 대적자에게 넘기지도 않을 것을 약속한다(16절). 17절에 나타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일관성 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것이고, 항복하지 않으면 성이 불타고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종용한다. 이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털어놓는다. 시드기야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고, 바벨론에 항복한 유다인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이다(19절).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바벨론에서 그들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에게 시드기야를 넘길 것이고, 그렇다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복한 유다인들에게 조롱을 당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항복하면 바벨론은 시드기야를 바벨론에 항복한 유다인들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20절) 그렇다면 시드기야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에 항복한 유다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또한 바벨론에 항복한 유다인들이 왜 시드기야를 조롱할 것인가? 바벨론에 항복한 유다인들은 친바벨론 세력을 의미한다. 그들은 베냐민 땅 미스바에서 반유다, 반시드기야 반란을 주도하고 있는 친바벨론 세력이다. 그들이 왜 시드기야를 조롱하며, 시드기야는 왜 그것이 두려운 것인가? 시드기야의 모후는 친바벨론 세력의 지지를 받았던 하무탈로 시드기야 역시 친바벨론 세력에 속해 있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왕위에 올랐을 때 친바벨론 세력들은 시드기야에게 친바벨론적 정책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정책은 바벨론에 조공

을 거절하는 것으로 반바벨론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드기야의 결정은 전쟁으로 이어졌다. 또한 24절에서 시드기야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25-26절에서 시드기야는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 왕에게 뭐라고 전했느냐고 물으면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하라고 말한다. 이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시드기야의 말대로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 묻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가르쳐 준 대로 대답한다(27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와서 확신을 얻었다고 해도, 유다에 반바벨론적 정서가 팽배했다. 또한 친바벨론적 정치 성향을 가졌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조공을 거부하고, 이집트의 원조를 기대했던 이유는 친이집트 세력이 유다 내의 정치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친이집트 세력이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시드기야의 왕권은 약했다. 결국 시드기야의 결정이 바벨론의 침략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면 친바벨론 세력들이 시드기야를 조롱할 것이다. 시드기야에게 있어서 함께 공성전을 펼치고 있는 친이집트 세력보다 모후인 하무탈과 동복 형제였던 여호아하스의 지지 세력이었던 친바벨론 세력에게 조롱당하는 것이 더 커다란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39장:1-10절은 예루살렘의 함락을 묘사한다. 39:11-14절은 예레미야의 석방을 나타내고, 39:15-18절은 에벳멜렉의 구원을 이야기한다. 39:1-10은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역사적 상황이 묘사된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자 시드기야 왕과 군사들은 밤에 아라바로 도망을 가지만, 여리고 평원에서 바벨론 군사들에게 사로잡혀 립나로 끌려간다(4-5절).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를 심문하고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아들들과 귀족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에 포로로 끌고 간다(6-7절).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략해 왕궁과 백성들의 집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었다(8절). 또한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바

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다(9절). 그리고 바벨론 장수 느부사라단은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을 유다 땅에 남기고 포도원과 밭을 주었다(10절). 이 년간의 긴 농성 끝에 예루살렘이 함락 당했다. 전쟁에서 함락당한 도성들이 대부분 약탈당하고 불태워지는 것처럼 예루살렘 역시 왕궁과 민가가 약탈당하고 불태워졌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에게 행한 행위는 그동안 바벨론이 유다에 행했던 조치들과는 차이가 난다. 여호야김 시기 유다가 공물을 바치지 않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시드기야는 유다를 침공했으나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을 사로잡아 가고 대신 유다의 왕족이었던 여호야킨의 삼촌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삼아 유다를 통치하게 하고 유다를 봉신국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왕위에 앉혀진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공물을 바치지 않고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키자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백성들까지 포로로 잡아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이미 바벨론에 항복할 의지가 있는 백성들은 베냐민 땅 미스바에서 그달라가 조직한 반란군에 들어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예루살렘 성안에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반항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며 친이집트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대한 바벨론의 입장에서 더 이상 유다의 반란의 씨를 남겨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10절은 마지막에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포도원과 밭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진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했다. 그러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유다에는 희망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빈민들이 남았다. 그리고 바벨론의 사령관은 그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주었다. 전쟁이 일어나면 승전한 군인들이 패배한 도시에 들어설 때 집을 불태우고 가진 것을 노략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식량을 군량으로 사용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10절에서 그려진 바벨론의 사령관은 포도원과 밭의 식물을 노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의 빈민에게 나눠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바벨론이 마지막까지 항전을 택한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강압적인 정책을 펼쳤을지라도 대항하지 않는 빈민들에게는 재건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 이 대항하지 않은 빈민들은 베냐민 땅 미스바에서 그달라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은 전쟁 포로로 대우했으나 친바벨론 세력이 거주했던 다른 지역에서는 예외를 적용했다. 이것은 예레미야 39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했으나 새로운 희망이 바벨론과 바벨론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통해서 싹틀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39:11-14절은 예레미야의 석방에 대해서 다룬다. 11-12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사령과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를 선대할 것을 명령한다. 이미 바벨론의 왕은 예레미야가 친바벨론적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14절에서 예레미야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라에게 보내진다. 이것은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를 그달라와 같은 친바벨론적 정치 세력의 일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9:15-18절은 예레미야가 왕궁 뜰에 갇혀있던 때, 즉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돌아간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남은 모든 사람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예언은 베냐민 문을 통해 바벨론에 항복하고 미스바로 보내지거나 다른 곳을 탈주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때까지 예루살렘 성안에 남아있던 자들은 항전을 택한 자들로 간주되어 죽임을 당하거나 노략의 대상이 되고 포로로 잡혀갈 운명임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39:15-18절에 주어진 말씀은 에벳멜렉 개인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지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에벳멜렉의 이야기가 예루살렘 멸망

이후의 본문인 39장 마지막에 위치하는 이유는 비록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유다가 멸망했지만, 남은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4. 결론

기원전 587년 유다 왕 시드기야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했다. 유다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에서 제국들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제국들 사이에서 힘의 줄다리기의 대상이 되었다. 제국들은 유다가 속한 하티-랜드의 통제권을 갖기 위해 서로 경쟁하였다. 그 사이에서 유다는 제국들의 힘의 역학 관계에 의해서 이집트와 바벨론의 봉신국으로 전락했다. 요시아의 죽음 이후 제국들의 통제권이 바뀔 때 마다 유다의 왕권은 바뀌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이 되어야 했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봉신국이 되었다.

시드기야 통치 시기 유다 안에는 두 개의 정치 세력인 친바벨론 세력과 친이집트 세력이 정권 다툼을 하고 있었다. 친바벨론 세력은 요시아의 개혁 정치에 참여한 세력으로 유다 정치에 깊게 관여했다. 친이집트 세력의 지지를 받았던 유다 왕 여호야김은 왕이 된 후,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쳤으나, 이집트를 의지하여 바벨론에게 조공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하여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여호야긴과 유다의 고관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다. 바벨론은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만들어 통치하게 했으나 유다의 여론은 반바벨론적 정서가 팽배했다. 또한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호야긴을 지지하는 세

력과 시드기야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드기야의 왕권은 약화되었고 친이집트파가 유다 내부의 정권을 잡았다. 시드기야의 모후가 친바벨론 세력이 지지한 사람이고, 시드기야 본인이 친바벨론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시드기야는 이러한 정치적 시류를 거부하지 못했다. 그 결과 시드기야 역시 친이집트적 세력의 의견을 따라 바벨론에 조공을 보내기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으며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자 이집트에 원조를 요청했다. 시드기야의 친이집트 정책들은 자신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고위 고관들의 영향이었다.

예레미야 37-39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나타낸다. 예레미야 37-39장은 이집트가 시드기야의 요청에 따라 군사를 보내자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포위를 잠시 풀었던 때부터 시작한다. 이 년간의 포위 끝에 예루살렘에 식량이 떨어졌고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이탈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 했으나 베냐민 문을 통해 예루살렘 백성들이 탈주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베냐민 땅 미스바에 그달라를 중심으로 친바벨론 세력들이 집결하여 반란 정부를 조직하였기 때문이었다. 계속된 백성들의 이탈로 인해 예루살렘 안에는 친바벨론 세력은 없고 친이집트 세력만 존재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것이고 대항하면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으로 향하자 유다의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잡아 가둔다. 친바벨론 세력의 부재로 인해 예레미야는 변호 없이 반란죄로 고소당한다.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고 시드기야는 야밤을 틈타 도망가던 중 바벨론에 사로 잡혀 립나로 이송된다. 시드기야는 그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눈을 뽑혀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예레미야서는 친바벨론적인 모습을 남겨놓는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미 예레미야가 친바벨론 세력의 일원임을 알고 예레미야를

환대한다. 뿐만 아니라, 친이집트 세력이거나 바벨론에 대항하던 세력들만 남아있던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후 왕궁과 집들을 불사르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지만 빈민들은 남겨놓고 포도원과 밭을 주었다. 예레미야 39장은 이들을 통한 재건의 희망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예루살렘의 모두가 멸망했으나 예레미야를 구원했던 에벳멜렉은 살아남은 것을 볼 때 바벨론은 유다를 빈 땅으로 만들려던 것이 아니라 친바벨론 세력을 중심으로 한 재건을 기대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갓월드, 노만.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 정치」 (윤성덕 옮김), (서울: CLC, 2018).
- 밀러, 맥스웰 /헤이스, 존 H. 「고대 이스라엘 역사」 (경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 버뱅크, 제인/쿠퍼, 프레데릭 「세계제국사」 (이재만 옮김), (서울: 책과함께, 2016).
- 이동규, “요시야 개혁과 암 하아레츠”, 「구약논단」 28집 (2008년 6월), 49-66.
- 정중호, “시드기야 왕의 노비해방과 왕권강화”, 「구약논단」 44집 (2012년 6월), 178-201.
- 톰슨, J. A. 「예레미야 (하)」 (최우성 옮김) (서울: 크리스찬서적, 1993).
- 헤이우드, 앤드류.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전 정치학」 (조현수 옮김),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4).
- Albright, William F. trans. “Lachish Ostrakon III,” in *ANET*, ed. James B. Pritchar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322.
- Carroll, Robert P. *Jeremiah, A Commentary,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6).
- Holladay, William L. *Jeremiah 2: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Chapters 26-52*, new e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 Lipschits, Oded *The Fall and Rise of Jerusalem: Judah under Babylonian Rule* (Winona Lake: Eisenbrauns, 2005).
- Peterson, John L. “Libnah” *ABC* 322-323.
- Seitz, Christopher R. *Theology In Conflict* (Berlin: De Gruyter, 1989).

Sharp, Carolyn *Prophecy and Ideology in Jeremiah: Struggles for Authority in the Deutero-Jeremianic Prose*, 1st edition (London ; NY: T&T Clark, 2003).

Wilcoxon, Jay A. "The Political Background of Jeremiah's Temple Sermon", A.L.Merrill and T.W. Overholt (eds.) *Scripture in History and Theology*. (Pickwick, 1977). 151-166.

검색어

시드기야, 예레미야 37-39장, 유다의 정치 세력, 제국들이 유다에 미친 영향, 친바벨론 세력 vs 친이집트 세력

[ABSTRACT]

Political Parties during Zedekiah's Reign in Jeremiah 37-39

Mi-Hye Jung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e book of Jeremiah is the most politically oriented of the prophetic books. Hatti-land, where ancient Judah was located, lies between Babylon, Assyria (the great empire of Mesopotamia), and Egypt. Since the Hatti-land countries acted as buffers of power between these superpowers, Judah was influenced by relations with these great powers. Empires conquer, colonize, and intervene for their own benefit. The small Hatti-land countries were geopolitically interfered by the empires of Mesopotamia and Egypt. Moreover, Judah was destroyed by Babylon in 587 BCE and became a Babylonian colon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look at the power dynamics of the great powers of the time.

Nebuchadnezzar changed the name of Jehoiachin's uncle Mattaniah to Zedekiah and made him king of Judah in place of Jehoiachin (2 Kgs 24:17). Zedekiah's mother was Hamutal, the mother of Jehoahaz, who was supported by the pro-Babylonians. Although Zedekiah grew up in a pro-Babylonian environment, during Zedekiah's reign, the pro-Babylonians held only weak political power. Therefore, Zedekiah adopted a pro-Egyptian policy. Jeremiah 37-39 details the ideological aspects of Judah's political parties through their relationships with empires during the reign of Zedekiah.

www.kci.go.kr

key words

Zedekiah, chapters 37-39 of the Book of Jeremiah,
political parties during Zedekiah's Reign, pro-Babylonians vs pro-Egyptian,
relationships with empires

투고일: 2023년 10월 12일

심사일: 2023년 10월 29일

게재 확정일: 2023년 11월 21일

www.kci.go.kr